

“소유의 노예이니 온통 잘못뿐”

지원스님(전불련 의장)



해마다 봄이 되면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치르지만, 지난 80년 5·18처럼 무섭고 두려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IMF 경제위기 속에 치러 이번 봉축법회도 불안하고 걱정스럽다.

재벌들이, 정부와 관료들이 무지·무능하고 탐욕을 채우며 경제위기가 왔다고들 한다. 정말 그렇까. 그런 정치

사치와 낭비 '국난' 불러
관심과 애정으로
춤과 배고픈 이 돌봐야

지도자와 재벌과 정부를 누가 허락하고 선택했다 말인가. 다시 생각해 보자. 언론의 사회적 진단과 비판기능은 무엇을 했으며, 우리 주변의 종교들도 인간성 황폐화로 사람의 양심이 심각하게 훼손되어도 소극적 대응뿐이었지, 국난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

물론 경제위기의 직접적 책임의 과중이나 범죄적 직무유기를 묻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이 국난의 깊고 넓은 참 의미와 원인을 깨닫기 위해서다.

이고 타락이며 불행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세상 이야기는 그만두고 부처님 모시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반성해 보니까 막혔다. 참회는 그만두고 몸뚱이를 바르게 부끄러웠다. 참회 안해도 될 게 있나 하고 둘러보니 민망하게 하나도 없었다. 살아가는 근본이 모두 잘못된 것이다. 소유의 노예가 되어 방황하는 자화상만 더욱 선명했다.

소유는 어떤 소유이든지 고통의 가중일 뿐이다. 속된 말로 참회 안 할 것이 좀 있어야 참회를 하고 말고 할 것이지, 온통 잘못뿐이니 무슨 참회가겠는가. 내년에는 열심히 살아서 참회 안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실직과 도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냉소와 싸늘함에 소리없이 눈물로 배회하고 있다. 그들에게 눈물을 손수 닦아 주지는 못할 망정 우리 모두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심어 주어야 한다.

부처님이 누구인가. '중생구제'를 위해 그분이 오신다면 누구부터 꺼안으실까. 스님들? 부귀한 고관대작들? 아니면 춤과 배고픈 사회적 약자들이 아닐런지.

'부처님오신날'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201명 설문

“初心으로 돌아가 참불자 서원”

강건기(전북대학교수·철학)



금년 5월3일은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이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이 날을 봉축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또 불자들은 간절한 원을 담아 연등을 밝힌다.

올해의 부처님 오신 날을 우리는 불자들은 어떻게 맞으면 좋을까? 이 날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의 회상이나 기념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부처님께서 여여히 오시는 날로 삼아야겠다. 조용히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한 불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날로 맞았으면 좋겠다.

참 불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 <잡아함경> <일체사경(一切事經)>에는 불자의 조건으로 16가지를 들고 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고향인 카필라성을 방문했을 때 석가족 출신의 제자 마하나야마가 '어떤 사람을 재가불자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인성적인 것은 참 재가불자의 실천을 하나 하나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실천을 이웃에게도 권해서 함께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즉, 그것을 계율리 한다면 반쪽 불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 보시를 행했는가 보자. 나눔과 베품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보시는 우리가 이웃과 모든 생명과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이며, 내가 무아(無我)이고 공(空)이라는 사실을 터득하는 지혜의 길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잘못됐습니다' 하고 참회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열 여섯가지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한 철저

무엇을 안다는 마음
공부 좀 했다는 생각
허공처럼 비우자

한 반성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참 불자로서의 삶을 서원해야겠다. 지금까지의 수행, 무엇을 안다는 마음, 공부 좀 했다는 생각 등 일체를 저 허공처럼 비우자. 그리고 그 텅빈 마음에 '참 불자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기쁨을 굳건히 세우자.

이것이 다음인 연등을 밝히는 참 의미일 것이다.

재가신도 '불자조건' 평균 58점

재가불자들은 불자의 조건을 얼마나 갖추고 있을까. <우바세경> <일체사경>에 나타난 '불자의 조건'은 모두 16가지(설문 내용 참조). 이 16가지 조항에 대해 불자들은 약 9.4개 항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백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재가신도의 불자조건 점수는 58.7점이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본지가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불교신학단체 종사자, 사찰 신도회 회원 등 201명의 재가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는 참 불자인가' 주제의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조사됐다.

현대불교 '우리는 참불자인가' 201명 설문

'불자의 조건' 16개 항목 전체를 실천하고 있는 재가불자는 전체 응답자중 21명(10.4%)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반면 3개항목 이하만을 지키고 있는 불자는 비교적 젊은층으로 나타났다. 16명중 15명이 20~30대(1명은 40대)인 것으로 드러나 젊은층을 수색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소 호트러진) 불자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젊은 불자일 수록 남에게 적극적으로 전법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할 것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불자는 30대(36.9%) 20대(33.6%) 40대(15.6%)

50대(9%) 60대(4.9%) 순으로 젊은층을 수색 포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스님들에게 청법(請法)할 것을 권유하는 불자도 20대(35.2%) 30대(33%) 40대(17%) 50대(8%) 60대(5.7%) 10대(1.1%) 순으로 나타나 젊은층을 수색 능동적으로 타인에게 청법을 권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20·30대 불자들은 자주 절에 나가 스님에게 법을 청하거나(30대 32.4%, 20대 29.7%) 스스로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있다(20대 36.6%, 24.4%)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젊은 불자들이 나이든 불자보다 불자의 조건을 갖추

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 젊은 불자들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계율에 대한 나름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자들은 참불자이기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타났다. 8개 주요 실천항목을 실천하는 불자들중 약 70%만이 타인에게도 이를 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10명중 3명의 불자는 자리아타(自利利他)를 겸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도 상당수의 불자들이 타인에게 불교를 권하는 포교보다는 개인 중심적인 불자로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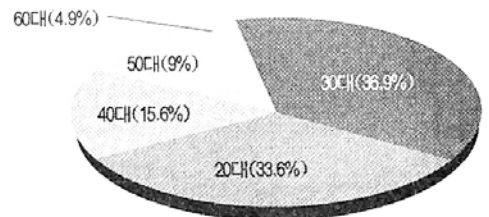
자신은 삼보에 귀의하면서도 타인에게 권유하지 않는 응답자는 24.7%, 자신은 계율을 수지하면서

도 타인에게 권하지 않는 이가 25%, 자신은 보시행을 하면서도 남에게 권하지 않는 불자가 18.9%로 각각 나타났다. '나만 잘 하면 되지'라는 소승(小乘)적인 수행에 치우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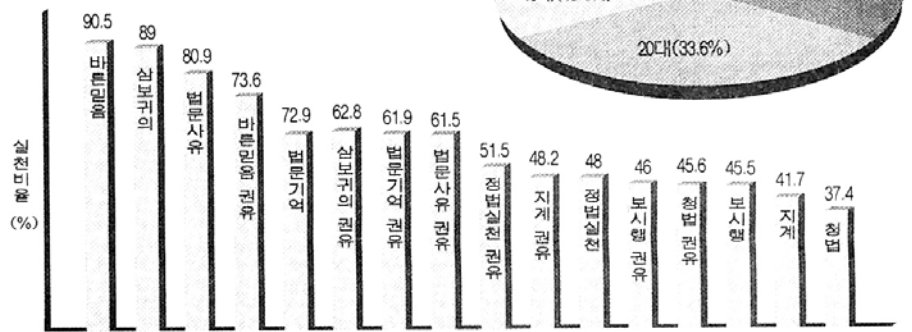
한편 조사에 응답한 불자중 90.5%는 스스로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가불자로서 89%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스님에게 청법', '지계', '보시행' 등 실천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면을 보여줬다. 이는 중년층 이상의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관념적인 수행을 결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재경 기자

타인에게 '삼보귀의' 권유하는 불자



참불자의 조건 16항목



설문내용과 응답비율

1. 나는 세가지 보배(불·법·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89%가 실천)
2.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62.8%)
3. 나는 바른 믿음을 가집니다.(90.5%)
4.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73.6%)
5. 나는 깨끗한 계율을 지니고 있습니다.(41.7%)
6.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48.2%)
7. 나는 언제나 보시를 행합니다.(45.5%)
8.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46%)
9. 나는 자주 절에 나가 스님에게 법을 청합니다. (37.4%)
10.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45.6%)
11. 나는 들은 법을 잘 받아(기억) 지킵니다.(72.9%)
12.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61.9%)
13. 나는 받아지던 법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 뜻을 깊이 관찰합니다.(80.9%)
14.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61.5%)
15. 나는 바른 법에 따라 실천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48%)
16. 그리고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합니다.(51.5%)

*이 16가지 불자의 조건을 지닌 이들을 참된 불자라 할 것입니다.(평균점수 58.73점)
통계분석 협찬=중앙승가대 전산원(원장 김용철교수)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大韓佛敎曹溪宗

한마음선원 (禪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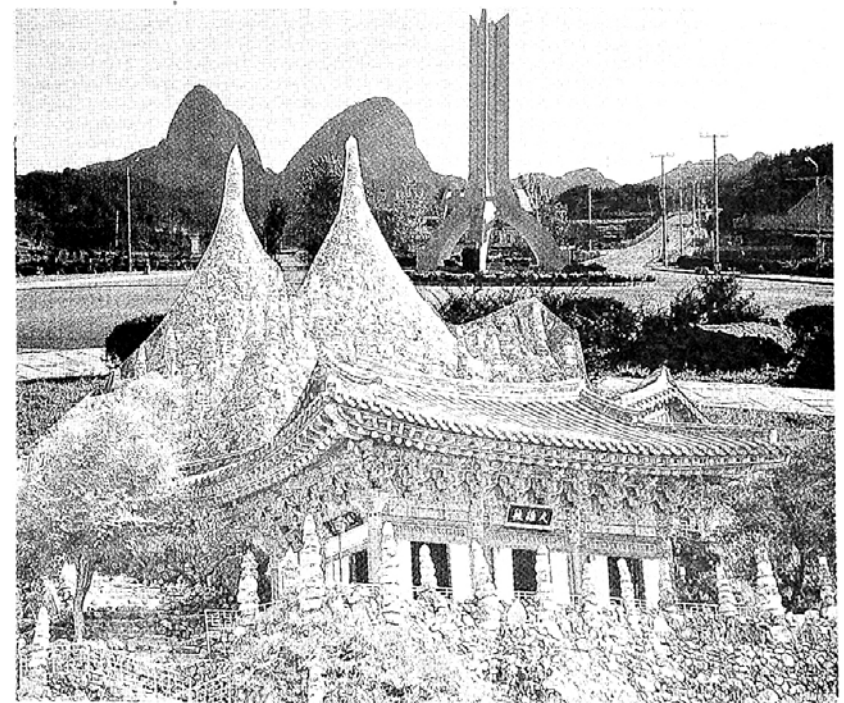
원장 대행
주지 혜원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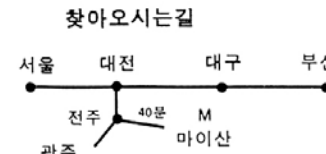
■ 본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EL : 사무처 0343-72-3100
FAX : 0343-72-2746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지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